

2002년도 전자산업 수출입 실적

“2002년도 전자산업 수출 611억불 달성”

- 전자산업 대일역조는 심화 -

〈본회 전자산업연구소〉

2002년도 전자산업의 수출이 전년대비 18.0% 증가한 611억불을 기록하고, 당초 전망치인 592억불을 초과 달성하고, 무역수지도 34.2% 증가한 230억불의 흑자를 이루었다고 분석 했다.

수입은 전년대비 10.0% 증가한 381억불을 기록했다.

수출이 예상외의 호조를 나타낸 것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 디지털 전자제품을 잇달아 출시하였다는 점, 전자업체가 수출시장의 차별화 및 다변화에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나섰다라는 점, 지난해 상반기의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에 따른 국가 이미지 및 기업 브랜드이미지가 대외적으로 크게 제고되었다는 점 등에 힘입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자산업 수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전자수출은 한자리 수의

증가율로 정체된 반면, 수입은 두자리 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대일 전자무역 적자의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02년 전자산업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불, %)

구 분	2002년	2001년	2002년(검정)
수출	66,554 (29.3)	51,738 (-22.3)	61,074 (18.0)
수입	43,143 (36.0)	34,624 (-19.7)	38,103 (10.0)
무역수지	23,411	17,114	22,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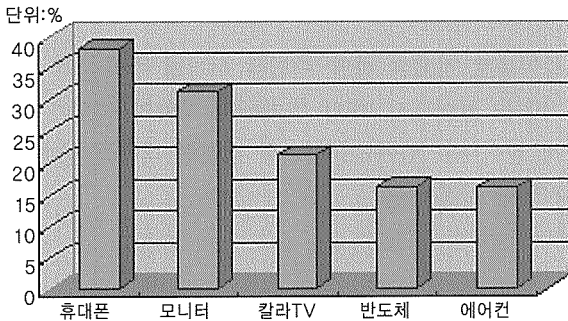
● 주요 특징

⇒ 수출 특징

휴대폰, 모니터, 칼러TV, 반도체, 에어컨 등 상위 5대 품목이 전체 전자산업의 수출 증가세를 리드하고 있다.

휴대폰은 전년대비 38.1%, 모니터는 31.4% 등 이들 품목은 30%를 상회하였고, 이어 칼러TV가 21.3%, 반도체가 16.2%, 에어컨이 16.1%를 나타냈다.

〈5대 전자품목 수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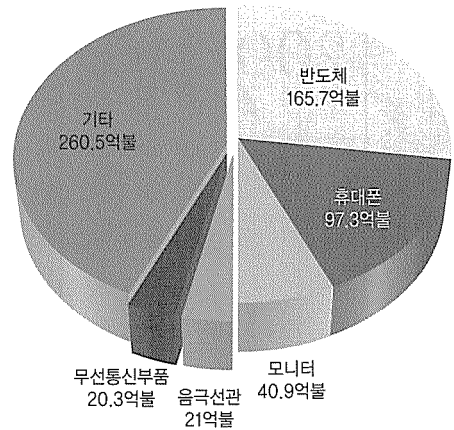


특정 품목으로 수출 구조가 크게 편중되어 있다.

수출 규모가 가장 큰 반도체, 휴대폰, 모니터 등 상위 3대 품목이 절반 이상을 점하고 있는데, 이 3대 품목의 수출 합계가 309억불에 달해, 전체 전자 수출의 50.5%를 차지하였다.

편중구조는 해외시장의 변동에 상당히 취약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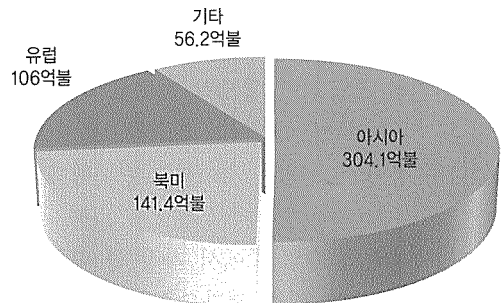
〈5대 품목별 수출 비중〉



아시아지역의 수출 비중이 절반을 상회한 반면, 북미지역은 다소 비중이 감소되고 있다.

아시아지역의 전자수출은 재작년의 45.8%에서 지난해 50.3%로 상승하였으나, 북미지역은 26.3%에서 23.2%로 하락하였고, 유럽은 17.8%에서 17.4%로 정체되었다.

〈지역별 전자 수출 비중〉



⇒ 수입 특징

단일 품목으로 최대의 수출 규모인 반도체가 수입이 수출을 증가하면서 역조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반도체의 수입 규모가 전년보다 13.2% 증가한 176억불에 이르러, 오히려 10.3억불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

대일 전자수입이 대폭 증가하면서 대일 전자역조가 심화되고 있다.

대일 수출이 부진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반도체, 축전기, 인쇄회로기판, 캐패터 등 분야에서 대일 수입이 대거 늘어남에 의해, 대일 수입은 전년보다 13.6% 증가한 98억1천만불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대일 전자무역적자가 전년대비 9억8천만불 늘어난 44억6천만불로 급증, 대일 무역역조를 우려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 주요 동향

⇒ 수출동향

품목별로는 가격반등, DDR 등 고부가 제품으로의 시장전환, 고정거래비중 확대 등에 힘입은 반도체, 중국, 유럽의 GSM 수요확대, 단말기 교체수요 증가, 하이엔드 시장의 공격적 마케팅 등에 힘입은 휴대폰, 가격하락 및 교체수요 등에 힘입어 급속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TFT-LCD, 미국의 디지털방송 의무화 및 북미시장 특수에 힘입은 디지털TV, 디지털 가전기기, 모바일 및 무선통신기기, 네트워크장비의 수요증가에 따른 전자부품 등이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컴퓨터 대체수요 연기, IT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지원, 무선통신기기로의 대체수요증가 등의 이유로 컴퓨터, 보조기억장치, 유선통신기기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전자 품목별 수출 현황〉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증가품목 : 반도체(165억7천만불, 16.2%), 휴대폰(97억3천만불, 38.1%), 모니터(45억9천만불, 31.4%), 음극선관(21억불, 14.8%), 무선통신기기부품(20억3천만불, 14.8%), 칼라TV(19억 6천만불, 21.3%), 에어컨(14억4천만불, 16.1%), 음향기기부품(11억6천만불, 8.8%), VCR(10억2천만불, 8.3%), 냉장고(8억9천만불, 16.1%),

감소품목 : 컴퓨터(16억6천만불, -12.6%), 보조기억장치(15억2천만불, -6.7%), 전자관부품(5억5천만불, -4.7%), 축전기(4억6천만불, -3.0%), 영상기록매체(4억6천만불, -3.9%), 컴포넌트(2억7천만불, 10.5%), 유선전송장치(2억2천만불, -34.1%), 의료용전자기기(2억2천만불, -9.5%), 무선교환기 및 중계기(2억1천만불, -35.8%), 유선통신기기(1억7천만불, -4.6%)

대륙별 수출의 경우, 아시아는 반도체, 휴대폰, 컴퓨터부품, 모니터, 음극선관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29.7% 성장한 307억2천만불을 기록, 최대의 전자산업 수출시장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북미 역시 반도체, 휴대폰, 모니터, 전자레인지, VCR, 에어컨, 칼라TV 등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4.1% 성장한 141억5천만불을 기록했으며, 유럽 전년대비 15.0% 증가한 106억불, 중동이 23.4% 증가한 21억7천만불, 대양주가 전년대비 7.7% 증가한 8억1천만불, 아프리카가 전년대비 11.0% 증가한 2억4천만불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에 반해, 금융시장 및 정치적, 사회적 불안 등으로 시장이 크게 위축된 중남미는 전년대비 5.0% 감소한 23억8천만불을 기록했다.

〈지역별 전자산업 수출 추이〉

(단위: 백만불, %)

구분	2001년			2002년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아시아	23,691	-20.3	45.8	30,718	29.7	50.3
북미	13,591	-30.3	26.3	14,148	4.1	23.2
유럽	9,214	-23.5	17.8	10,600	15.0	17.4
중남미	2,502	-7.8	4.8	2,376	-5.0	3.9
중동	1,759	20.7	3.4	2,171	23.4	3.6
대양주	753	-6.6	1.5	811	7.7	1.3
아프리카	218	6.5	0.4	241	11.0	0.4
기타	11	-35.5	0.0	8	-22.2	0.0
합계	51,738	-22.2	100.0	61,074	18.1	100.0

주요 국가별 수출의 경우,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의 경우 반도체, 모니터, VCR, 전자레인지, 에어컨, 디지털TV를 비롯한 칼라TV 등이 크게 호조를 보이며 전년대비 36% 증가한 136억6천만불 기록했다.

하지만 컴퓨터, 보조기억장치, 컴퓨터부품 등이 수출감소를 보이며 컴퓨터 시장이 아직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휴대폰, 컴퓨터부품, 음극선관, 모니터, 반도체, 칼라TV, 인쇄회로, 보조기억장치 등이 괄목할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년대비 100.5% 증가한 75억1천만불 기록하였고, 이로써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전자 수출시장 2위로 올라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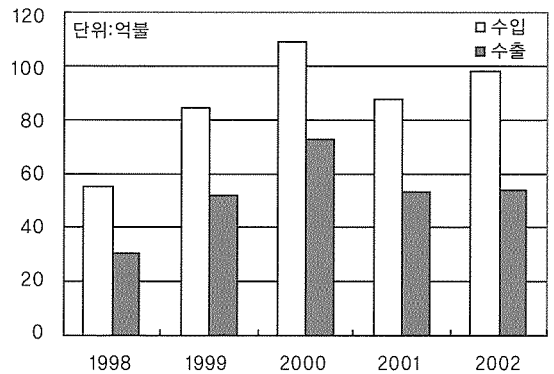
일본은 반도체, 영상기록매체, 칼라TV, 인쇄회로 등이 호조를 보였지만 장기침체를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경제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0.4%에 증가에 불과, 53억5천만불을 그쳤다.

〈대일 전자 무역수지 추이〉

(단위: 백만불, %)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수출	3,048 (△21.1)	5,157 (69.2)	7,297 (41.5)	5,331 (△26.9)	5,350 (0.4)
수입	5,532 (△32.1)	8,455 (52.8)	10,902 (28.9)	8,809 (△19.2)	9,807 (13.6)
무역수지	△2,484	△3,298	△3,605	△3,478	△4,457

〈대일 전자 수출입 추이〉



〈주요 10대국 전자 수출 추이〉

(단위: 백만불, %)

구분	2001년			2002년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미국	13,183	-30.7	25.5	13,662	3.6	22.4
중국	3,741	0.8	7.2	7,503	100.5	12.3
일본	5,331	-26.8	10.3	5,350	0.4	8.8
홍콩	3,722	-7.5	7.2	5,177	39.1	8.5
대만	3,525	-28.4	6.8	4,257	20.8	7.0
싱가폴	2,590	-30.0	5.0	2,415	-6.8	4.0
영국	1,974	-41.3	3.8	2,373	20.2	3.9
독일	1,935	-31.0	3.7	2,220	14.7	3.6
말레이시아	1,517	-31.2	2.9	1,968	29.7	3.2
필리핀	1,288	-28.7	2.5	1,645	27.7	2.7

수입동향

품목별로는 정보통신 및 디지털기기 등 세트제품의 수출, 내수 증가로 반도체, 무선통신기기부품, 축전기, 인쇄회로, 연결부품 등 전자부품이 크게 증가했으며,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심리 확대에 힘입어 내구소비재인 비디오카메라, 칼라TV, VCR 등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전자 품목별 수입 현황〉

(금액:전년대비 증감률)

증가품목 : 반도체(176억불, 13.2%), 무선통신기기부품(12억4천만불, 5.0%), 계측기(11억2천만불, 11.0%), 컴퓨터(9억3천만불, 0.5%), 모니터(8억3천만불, 100.4%), 경보신호기(8억만불, 95.2%), 축전기(7억5천만불, 6.9%), 인쇄회로(5억2천만불, 20.7%), 연결부품(5억1천만불, 24.6%), 비디오카메라(3억불, 66.1%), 칼라TV(2억6천만불, 68.8%), 스피커(2억1천만불, 32.3%), 카스테레오(1억5천만불, 18.3%), VCR(1억3천만불, 47.3%)

감소품목 : 컴퓨터부품(17억6천만불, -20.9%), 보조기억장치(9억6천만불, -19.0%), 유선전송장치(9억6천만불, -8.8%), 음향기기부품(4억6천만불, -15.4%), 축전지(4억3천만불, -11.8%), 음극선관(3억6천만불, -16.5%), 분석시험기(3억5천만불, -0.5%), 스위치(2억1천만불, -1.3%), 라디오카세트(1억7천만불, -3.7%), 센서(1억4천만불, -0.6%)

국별 수입의 경우 일본의 수입은 반도체, 컴퓨터, 전자응용기기, 계측제어분석기, 비디오카메라, 모니터, 칼라TV, 전자부품 등이 크게 증가한데 힘입어 전년대비 13.6% 증가한 98억1천만불을 기록하였으며, 전자산업 국별 수입에서 25.7%를 기록하며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수입은 IT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지연으로 반도체, 계측기, 무선통신기기부품, 의료용전자기기 등은 증가한 반면 유선전송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부품, 분석시험기 등은 감소하여 전년대비 1.1% 감소했으며, 비중역시 전년의 23.5%에서 21.1%로 낮아져 80억불을 기록했다.

중국의 수입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반도체, 컴퓨터부품, 정보신호기, 평판디스플레이, 축전기, 라디오카세트, 연결부품, 전자관부품 등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31.2% 증가한 42억 4천만불 기록했다.

〈주요 10대국 전자 수입 추이〉

(단위: 백만불, %)

구분	2001년			2002년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일본	8,633	-19.4	24.9	9,807	13.6	25.7
미국	8,124	-35.9	23.5	8,034	-1.1	21.1
중국	3,229	10.3	9.3	4,238	31.2	11.1
대만	3,009	-9.4	8.7	3,294	9.5	8.6
싱가폴	2,086	-13.6	6.0	2,365	13.4	6.2
말레이시아	2,076	-22.9	6.0	2,112	1.7	5.5
필리핀	1,355	-4.6	3.9	1,412	4.3	3.7
독일	769	-11.5	2.2	963	25.1	2.5
홍콩	640	-13.1	1.8	731	14.2	1.9
태국	626	-13.2	1.8	609	-2.7	1.6

한편, 전자산업연구소장 윤동훈 박사는 “우리나라 전자 수출은 미국이라크 위기, 북핵문제, 세계IT경기 지연 등 불확실성 악재들이 해소되는 올 하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회복하게 되면, 사상 최초로 700억불 고지에 도전할만한 좋은 기회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일 수출억조에 대해서는 “일본과의 한계기술 격차를 냉정하게 인식하면서, 실효성 있는 방향 설정과 선택적인 신기술 개발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